

2026년 6월 홍콩관광시장 리포트

PART 1 관광통계

□ '26년 6월 관광통계 분석 및 '26년 7월 전망

- 대학교 및 일부 초·중·고 방학, 단오절(6.19), 홍콩특별행정구 설립기념일(7.1) 등 휴일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수요 증가 전망
- 단, 유류세 증가로 인한 영향이 본격화 되면서 7~8월 단체·FIT 모두 판매 부진, 단거리 및 중국 본토 수요 증가 예상

□ 방한 홍콩인 관광객 수

- '26년 1~4월 '19년 동기 대비 2.7%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37,710	47,197	59,364	70,802									215,073
2025	44,278	30,270	44,030	64,591	51,363	56,109	64,224	64,860	40,879	44,671	49,635	68,239	623,149
2024	25,755	35,458	49,235	42,654	45,790	54,449	58,305	61,864	40,033	52,439	46,766	58,670	571,418
2023	26,777	16,237	27,155	38,138	28,617	31,874	39,527	43,031	30,424	41,375	38,052	42,777	403,984
2019	35,896	51,312	46,068	76,104	57,026	61,728	59,036	65,958	45,911	65,544	58,600	71,751	694,934

* (출처) 한국관광데이터랩 <https://datalab.visitkorea.or.kr/>

□ 방홍 한국인 관광객 수

- '26년 1~4월 '19년 동기 대비 69.1% 수준 회복,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129,083	96,260	82,425	64,530									372,298
2025	126,739	121,523	90,102	62,155	73,233	52,364	50,770	55,884	49,789	91,979	96,160	92,918	963,616
2024	100,022	84,707	67,393	63,804	56,604	47,223	48,089	60,032	64,796	78,822	85,029	96,705	853,226
2023	6,782	14,204	19,312	21,112	25,909	25,052	29,540	34,356	42,165	48,254	62,256	74,057	402,999
2019	161,115	143,804	136,225	97,710	106,017	92,229	78,210	72,166	40,684	45,591	35,402	33,387	1,042,540

* (출처) 홍콩관광청 파트너넷 <https://partnernet.hktb.com/>

□ 홍콩인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항공, 페리, 철도이동 등 모두 포함

- '26년 1~4월 '19년 동기 대비 28.8% 증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1,020,038	9,422,176	10,553,190	11,182,960									41,360,364
2025	9,665,937	7,845,160	9,691,689	10,500,935	9,739,974	9,450,365	9,648,151	10,308,328	8,841,501	10,161,382	10,270,382	11,418,191	117,541,995
2024	7,467,866	7,531,411	9,291,001	7,918,944	8,276,352	9,026,294	8,751,788	9,377,046	8,425,953	9,114,783	9,209,817	10,311,374	104,702,629
2023	1,657,751	3,608,113	5,326,148	6,357,321	5,743,364	6,031,857	6,810,259	7,160,569	6,309,797	6,958,609	7,447,015	8,792,558	72,203,361
2019	7,740,202	7,158,465	8,200,626	9,003,627	8,141,938	8,317,071	7,972,662	7,565,745	7,459,267	7,415,097	7,216,573	8,526,688	94,717,961

* (출처) 홍콩관광청 파트너넷 <https://partnernet.hktb.com/>

□ “항공” 이용 홍콩인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 ‘26년 1~4월 ‘19년 동기 대비 93.3% 회복, 전년 동기 대비 0.11% 증가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807,584	943,368	988,515	1,030,615									3,770,082
2025	987,169	730,359	871,688	1,176,616	936,205	950,682	1,054,326	1,081,042	790,245	959,946	919,632	1,231,000	11,688,910
2024	722,035	850,802	1,016,345	796,307	892,035	1,017,652	1,108,359	1,056,080	824,952	903,312	919,000	1,171,033	11,277,912
2023	564,915	438,491	634,760	764,369	709,969	804,488	966,249	919,504	732,974	800,701	808,093	1,053,332	9,197,845
2019	870,548	959,648	971,690	1,240,660	1,090,184	1,182,381	1,233,244	1,112,268	952,674	1,012,058	1,038,742	1,304,097	12,968,194

* (출처) 홍콩관광청 파트너넷 <https://partnernet.hktb.com/>

□ 홍콩 방문 인바운드 관광객 수

○ ‘26년 1~4월 ‘19년 동기 대비 77.8% 회복,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4811,700	5,141,714	4,354,229	4,217,311									18,524,954
2025	4,742,066	3,667,671	3,818,512	3,847,934	4,078,938	3,480,979	4,390,514	5,152,837	3,292,197	4,588,515	4,189,272	4,645,397	49,894,832
2024	3,825,617	4,001,190	3,401,991	3,391,381	3,398,458	3,132,598	3,921,630	4,453,877	3,062,003	4,090,054	3,568,437	4,255,551	44,502,787
2023	498,689	1,461,969	2,454,093	2,892,256	2,828,384	2,748,488	3,588,530	4,077,746	2,771,826	3,458,778	3,288,915	3,929,986	33,999,660
2019	6,784,406	5,589,628	5,860,346	5,577,201	5,916,541	5,143,734	5,196,969	3,590,571	3,104,049	3,311,571	2,626,127	3,191,466	55,892,609

* (출처) 홍콩관광청 파트너넷 <https://partnernet.hktb.com/>

□ 경쟁국 방문 현황(‘26.1~4월)

○ 전년 동기 대비 일본 -3.8%, 대만 -5.4%, 태국 -2.1%, 싱가포르 -3.3%

○ ‘19년 대비 일본 25.2% 증가/ 대만 73.6%, 태국 65.2%, 싱가포르 65.3% 회복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일본	‘26	200,048	233,900	216,300	226,000								876,259
	‘25	243,700	195,500	208,400	263,600	193,100	166,800	176,000	226,100	149,500	196,000	207,600	2,517,369
	‘24	186,300	205,900	231,400	184,500	217,500	250,600	279,100	246,600	170,200	198,800	227,062	2,683,438
	‘19	154,292	179,324	171,430	194,806	189,007	209,030	216,810	190,260	155,927	180,562	199,700	2,290,748
대만	‘26	76,023	81,833	92,887	107,973								358,716
	‘25	89,391	78,870	84,521	126,554	96,859	94,236	101,602	129,122	74,649	98,688	93,386	1,203,733
	‘24	81,020	92,848	124,375	84,543	87,241	101,696	104,642	127,837	81,089	86,715	92,567	1,198,217
	‘19	93,187	106,441	117,545	170,484	128,377	137,074	151,395	164,668	106,150	116,971	129,635	1,598,223
태국	‘26	40,346	55,659	47,371	55,094								198,470
	‘25	69,047	43,411	37,395	52,965	41,826	51,345	66,823	72,802	40,295	50,513	51,004	643,158
	‘24	47,831	67,278	78,463	59,401	64,981	81,602	97,896	107,831	59,891	62,126	66,244	876,076
	‘19	60,464	80,543	74,295	88,945	84,897	102,546	108,027	121,806	77,951	74,740	78,574	1,045,198
싱가포르	‘26	19,420	22,100	25,500	34,550								101,570
	‘25	25,870	21,230	23,380	34,550	32,810	27,750	38,200	38,780	22,470	26,180	25,070	337,650
	‘24	23,420	26,510	35,790	24,040	23,830	23,830	33,770	35,680	26,610	25,200	24,540	329,330
	‘19	30,056	38,921	34,355	52,203	36,424	36,216	50,806	52,767	35,348	36,059	40,381	488,482

* (출처) 각국 관광청. 일부 통계는 확정치 통계가 아닌 추정치 통계임.

- 홍콩 사상 최초 자체 ‘5개년 발전 계획’ 발표하며 경제 체질 개선 및 민생 안정을 위한 로드맵 제시
- 홍콩 정부는 2026년 6월 15일 향후 5년간의 발전 방향을 담은 ‘제1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2026~2030년)’ 초안을 전격 공개하고, 향후 두 달간 공식적인 대중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함
 - 이번 계획은 중국 본토의 ‘제15차 5개년 계획’ 일정과 동기화하여 수립되었으며, 홍콩이 중국의 국가 발전 전략에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동시에 자체적인 고품질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과제로 기존의 금융·무역 중심지 기능을 고도화하는 것 외에도 원자재 거래 및 고부가가치 공급망 서비스 등 신산업 육성을 명시했으며, 선전시와의 접경 지역인 ‘북부 대도시(Northern Metropolis)’ 개발 및 인프라 연결성 강화가 핵심 내용으로 포함됨
 - 아울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 교육, 주택, 실버케어 등 민생 복지 전반의 추진 방향을 포괄적으로 다루었으며, 오는 8월 14일까지 각계 전문가와 대중의 의견을 수렴·보완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임
 - 홍콩 당국은 일각에서 제기된 ‘계획경제 체제 전환’ 우려에 대해, 이번 계획이 일국양제 원칙과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의 틀을 철저히 준수 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될 것임을 명확히 밝힘

<인바운드 동향>

- **홍콩 2026년 1~5월 방문객 2,300만 명 돌파 및 관광청 중심 대규모 여름 마케팅 'Hong Kong Summer Fun' 본격 전개**
- 홍콩 문화체육관광부(Secretary for Culture, Sports and Tourism)와 홍콩 관광청(HKTB)은 2026년 1~5월 누적 방홍 방문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약 2,300만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올 한 해 전체 방문객 수는 총 5,3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지표별로 살펴보면 중국 본토 방문객이 1,767만 명으로 16% 증가했고, 비본토 방문객은 532만 명으로 7% 성장함. 특히 미주·유럽 등 장거리 시장 방문객이 5월 한 달간 22%, 5개년 누적 20%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간 반면, 단거리 시장은 중동 긴장 및 항공편 공급 축소 등의 영향으로 소폭의 변동성을 보임
 - 5월 한 달간 전년 대비 9% 증가한 446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한 홍콩 관광청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한 글로벌 통합 마케팅 캠페인인 'Hong Kong Summer Fun'을 전격 론칭함
 - 이번 여름 캠페인은 홍콩 전역에서 열리는 메가 이벤트들과 연계하여 추진되며, 관광업계 및 비즈니스 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지 주요 관광지, 다이닝, 교통, 쇼핑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수십만 장의 '여름 특가 쿠폰(Summer Deals)'을 관광객에게 배포할 예정임
 - 홍콩 정부는 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내년 홍콩 디즈니랜드의 새로운 '픽사(Pixar) 테마 구역' 오픈 및 2028년 오션파크의 번지점프·썰라인 등 액티비티 존 신설 등 관광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밝히는 한편, 세계관광공원협회(IAAPA) 엑스포의 홍콩 재유치를 통해 아태지역 마이스(MICE) 및 관광 허브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함

□ 델타항공, 유류비 상승 부담에도 홍콩-미국 직항 노선 재개

- 미국 대형 항공사인 델타항공(Delta Air Lines)은 글로벌 유류세 및 연료비 상승에 따른 운영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홍콩과 미국을 잇는 직항 여객 노선의 운항을 공식 재개하기로 결정함
- 이번 직항 노선 재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단된 지 수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홍콩 항공업계는 이번 조치가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글로벌 연결성을 재입증하고 양국 간 비즈니스 출장 및 프리미엄 관광 수요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함
- 항공 전문가들은 지속되는 항공 유류비 폭등과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 장거리 노선 운항의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델타항공이 미-홍콩 노선의 장기적인 수요 회복 잠재력과 대만구(Greater Bay Area) 시장의 허브 효과를 높이 평가해 과감한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분석함
- 홍콩 공항공사(AAHK)는 델타항공의 복항을 환영하며, 글로벌 항공사들의 홍콩 취항 및 노선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공항 이용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제3활주로 시스템의 본격적인 가동과 연계하여 홍콩 국제공항의 여객 수송 능력을 팬데믹 이전 수준 이상으로 빠르게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함

□ 홍콩관광청 호텔 전용 중소 규모 마이스(MICE) 단체 특별 재정 지원 프로그램 시행

- 홍콩관광청(HKTB)은 홍콩 내 허가된 호텔들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더 많은 기업 회의, 인센티브 여행 및 컨벤션(MIC) 단체를 유치하기 위해 개정된 'FY2026/27 중소 규모 MIC 단체 특별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2026년 6월 1일부로 본격 시행함
- 이번 개정 프로그램의 핵심 변화로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기업 회의 및 컨벤션에서 '인센티브 여행 단체'까지 확대 적용했으며, 참가자 수 101명에서 400명 사이의 규모가 큰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수준을 한층 강화함
- 아울러 글로벌 다변화 트렌드를 반영하여 홍콩관광청 공식 리스트에 등재된 할랄(Halal) 인증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무슬림 단체에게는 추가적인 인센티브 펀딩 혜택을 제공함
- 특히 해외에서 방문하는 MICE 단체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존의

최소 체류 기간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홍콩 내에서 '최소 1박'만 숙박하더라도 재정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수혜 대상을 넓힘

□ 홍콩 유네스코 지질공원 탐방로 '실명 예약제' 도입 추진

- 홍콩 정부는 최근 하이킹 명소로 인기가 높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Hong Kong Geopark)인 포핀차우(Po Pin Chau) 내 일부 제한 구역 탐방로를 대상으로 예약 티켓의 불법 전매(암표 거래) 및 무단 노쇼(No-show)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명 예약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이번 조치는 환경 보호와 안전을 위해 일일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특정 하이킹 코스에서 온라인 예약 시작 직후 티켓이 매진된 뒤 본토 소셜 미디어(SNS) 등에서 몇배의 프리미엄이 붙어 암표로 거래되거나, 가상 명의로 사재기된 티켓이 대거 노쇼로 이어져 일반 탐방객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임
- 새로 도입될 실명제 시스템 하에서 탐방객은 예약 시 본인의 법적 실명과 신분증(또는 여권) 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향후 지질공원 진입 검문소에서 현장 직원이 신분증 대조를 통해 본인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 홍콩 환경 당국은 실명제 도입이 다소의 현장 대기 시간을 유발할 수 있으나 생태 관광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보완한 후 적용 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임

□ 홍콩 국제공항 제2터미널 리모델링 완료 및 15개 항공사 이전 배정

- 홍콩 공항관리국은 새롭게 단장한 홍콩 국제공항 제2터미널(T2)의 리모델링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정을 완료한 총 15개 항공사의 체크인 및 탑승 수속 시설을 새로운 터미널로 완전히 이전했다고 발표함(6.10.)
- 메이블 찬(Mable Chan) 공항관리국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초기 운영 안정화 단계를 거친 결과 새로운 제2터미널의 수하물 위탁, 보안 검색, 출입국 심사 등 전 과정이 매우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지연 없는 안정적인 탑승 프로세스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함

- 새로 개장한 제2터미널은 첨단 스마트 기술을 대거 도입하여 여행객이 안면 인식만으로 신원 확인과 탑승 절차를 마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이를 통해 터미널 내 혼잡도를 낮추고 승객들의 대기 시간을 대폭 단축함
- 홍콩 교통 당국은 이번 제2터미널의 본격적인 재가동과 15개 항공사 배정이 공항의 여객 수용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제3활주로 시스템의 완전한 통합 가동과 연계하여 홍콩이 글로벌 항공 및 유통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더 굳건히 다질 것으로 기대함

〈아웃바운드 동향〉

□ 홍콩-카자흐스탄 직항 노선 2027년 재개

- 홍콩 최대 항공사인 캐세이퍼시픽(Cathay Pacific)은 2027년 1분기부터 홍콩과 카자흐스탄 알마티(Almaty)를 잇는 직항 노선을 주 3회 운항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번 직항 노선 재개는 존 리(John Lee) 홍콩 행정장관의 카자흐스탄 방문 및 비즈니스 사절단 파견 과정에서 성사되었으며, 양측은 항공 서비스 외에도 경제, 무역, 금융 등 총 43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현재 양국 간 직항편이 없어 경유 시 약 9시간 이상 소요되던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며, 에어버스 A330-300 항공기가 투입되어 승객과 화물 수송 효율을 높일 예정임
- 홍콩 정부는 이번 조치가 중앙아시아 시장에 대한 연결성을 강화하고, 특히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하에서 카자흐스탄과의 무역, 투자 및 관광 교류를 촉진하는 핵심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아울러 홍콩 정부는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홍콩 여권 소지자의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무비자 체류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2029년 알마티 동계 아시안 게임 개최에 따른 관광 수요 급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임

□ **홍콩 여행업계 구매력 높은 실버 세대 타깃 '중앙아시아 프리미엄 패키지 출시** 봄

- 홍콩 주요 여행사들은 은퇴 후 시간적·재정적 여유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고소득 '실버 세대(Silver-hair travelers)'를 유치하기 위해 실크로드 유적지와 대자연을 연계한 고가형 중앙아시아 패키지 상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음
-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홍콩 중장년층 사이에서 기존의 정형화된 아시아 휴양지나 유럽 패키지 대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이색적인 문화와 역사적 깊이를 체험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임
- 특히 최근 존 리(John Lee) 행정장관이 중동에 이어 중앙아시아 지역을 공식 방문하여 경제·문화적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관광 잠재력을 대대적으로 홍보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홍콩 대중과 중장년층 자산가들의 인지도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임
- 또한 현재 카자흐스탄 알마티 등으로 국한된 비행 노선 외에, 양국 정부의 항공 협정 진전으로 내년 중 주요 중앙아시아 허브 도시들과의 직항 노선 재개 및 신설이 예고되면서 이동 시간 단축과 접근성 개선에 따른 실버층의 심리적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됨
- 여행사들은 장거리 이동에 대한 실버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성급 호텔 숙박, 전문 가이드 동행, 엄선된 현지 특식 및 고급 전용 버스 지원 등 편안함과 안전을 극대화한 프리미엄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에 포함해 경쟁력을 높임
- 홍콩 여행업협회(TIC)는 인구 고령화와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맞물려 프리미엄 실버 관광이 핵심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일대일로(Belt and Road) 노선을 따른 직항 확대와 비자 면제 혜택을 발판 삼아 중장년층을 겨냥한 테마형 특수지역 관광 상품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함

□ **홍콩 승용차의 광둥성 진입 허용 '북행 정책', 2031년 6월까지 5년 연장 확정**

- 광둥성 인민정부는 강주아오 대교(HZMB)를 통해 홍콩 사륜차가 본토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홍콩 차량 북행(Northbound Travel for

Hong Kong Vehicles)’ 정책의 유효기간을 2031년 6월 1일까지 5년 더 추가 연장하기로 공식 승인함

- 본 정책은 당초 2023년 6월 1일 최초 시행 당시 3년의 유효기간을 가졌으나, 대灣區(Greater Bay Area) 내 물적·인적 교류 활성화와 양 지역 주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인프라 연계성 지속을 위해 전격적인 연장이 결정됨
- 공식 통계에 따르면 북행 정책 도입 이후 홍콩 및 마카오 주민의 본토 국경 통과 건수는 연평균 34%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2025년 한 해에만 약 1,800만 건의 통행을 기록한 데 이어 2026년 말에는 2,00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
- 홍콩 내 전체 등록 개인 승용차 약 50만 대 중 약 28%에 달하는 140,000대가 이미 본 프로그램에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며, 자동차 협회 측은 이번 5개년 연장 조치로 인해 향후 등록 차량이 20만 대 이상(전체 차량의 절반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라 예상함
- 한편, 이에 대한 상호 호혜적 조치로 본토 차량이 홍콩으로 진입하는 ‘광둥성 차량 남행 정책(Southbound Travel Scheme)’ 역시 2026년 7월 25일부터 기존 4개 도시에서 대만구(GBA) 내 9개 본토 도시 전체(선전, 둥관, 포산, 후이저우, 자오칭 추가)로 대폭 확대 시행됨
- 이와 함께 광둥성 차량의 홍콩 시내(Urban Area) 진입 허용 쿼터(예약 정원)를 기존 일일 100개에서 일일 200개로 두 배 늘려 교류 규모를 확충하기로 했으며, 대교 홍콩 포트의 자동화 주차장에 차를 대고 홍콩 시내를 관광하는 ‘Park & Visit’ 서비스도 7월 25일부터 9개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 출범함
- 현지 교통 당국 및 입법회 의원들은 양방향 자가용 여행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를 환영하면서도, 주말과 공휴일 珠海(Zhuhai) 및 홍콩 통관 검문소에서 발생하는 만성적인 병목 현상과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세관 인력 충원 및 차량 탑승 상태에서 통관이 가능한 일체형 시스템 도입 등을 추가로 촉구함

□ 홍콩인 역외 소비 및 단오절 연휴 해외여행 급증

- 최근 발표된 홍콩 입출국 통계에 따르면, 이번 단오절 연휴 기간 동안 총 117만 9,000만 명이 홍콩을 출입국한 가운데 홍콩 주민의 출국자 수가 52만

6,000명에 달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반면, 홍콩으로 유입된 중국 본토 관광객은 13만 2,000명에 그쳐 심각한 관광 수지 불균형을 나타냄

- 이러한 홍콩 청년 및 중장년층의 역외 여행 수요 증가는 고환율(미국 달러 연동 페그제로 인한 홍콩 달러 강세) 현상과 항공사 유류할증료 조정 등으로 해외여행의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구조적 요인에 기인함
- 홍콩금융관리국(HKMA)의 최신 결제 데이터 및 소비 리포트에 따르면, 홍콩 시민들의 해외 현지 신용카드 결제액과 모바일 페이를 통한 역외 소비 규모가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홍콩 내부의 소매 유통 및 내수 경기 침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룸
- 특히 선전, 광저우 등 중국 본토와 연결되는 고속철도의 편의성 확대로 인해 주말과 단기 연휴를 활용해 본토로 향하는 이른바 '북상 소비(北上消費)' 트렌드가 공고해졌으며, 이와 동시에 한국, 일본, 동남아 등 단거리 수요도 함께 폭발하며 아웃바운드 시장의 다변화를 이끌고 있음

※ 출처 :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스탠다드, 블룸버그 등 현지 언론매체

홍콩정부 보도자료 <https://www.info.gov.hk/gia/general/202206/01.htm?fontSize=1>

홍콩관광청 보도자료 <https://www.discoverhongkong.com/kr/index.html>

싱가포르, 대만, 태국, 일본 NTO 발표자료

Hong Kong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Wing On, EGL 등 홍콩 주요 여행사 모니터링 등